

# 가장 존귀하다던 사람의 머리, 거지도 안 가져가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43)

보달왕이 부처님을 만나

부연국에 보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언제나 치우치거나 그릇됨이 없었고,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3존을 모르는 것을 가엾게 여겼으며, 항상 재계(齋戒) 할 적에는 높은 누판에 올라서 보다가 뒤로 돌아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했다.

나라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이러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어 다 함께 의논했다.

“왕은 만백성의 어른으로 계시며 멀고 가까운 이가 공경하고 숭복하며,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이 복종할 것인데, 무엇을 청하고 바람이 있기에 위의를 욕되게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며 절을 하십니까?”

신하들은 간하려 했으나 감히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관민 수천과 함께 궁을 나오는데 얼마 오지 않아서 한 도인을 만났다. 왕이 연에서 내려와 예배하니 그 군중들도 따라서 그에게 예배했다. 이내 같이 돌아와서 음식을 준비하여 놓고 신하들은 간하였다.

“대왕은 지극히 높은 분이신데, 어찌하여 길에서 그 거지 도인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셔야 합니까?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천하에 존귀한 것이고 게다가 국왕은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의 머리와 여섯 개의 짐승의 머리를 구하여 오너라.”

이리하여 신하들이 두루 찾아 여러 날이 걸려야 비로소 왕이 명한 것을 구해왔다. 왕이 말했다. “저자라 가서 팔아 오너라.”

신하들은 팔러 갔으나 소와 말과 돼지와 양의 대가리는 모두 팔렸는데도 사람의 머리만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팔러 갔으나 그렇게 팔리지 않으니, 거지에게나 쓰게 하라.”

이렇게 하여 며칠을 지나면서 팔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거지도 가져가는 이가 없자 머리는 모두 명명 부풀면서 냄새가 났다. 왕은 이내 크게 노하여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는 가장 존귀해서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사람의 머리를 무엇 때문에 거지조차 가져가는 이가 없느냐? 곧 명하니, 수레를 차려라. 너른 못 가운데로 나가 물을 것이 있다.”

그러하여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 떨면서 성 밖으로 나가자,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의 선군 때에 언제나 일산(日傘)을 붙잡고 있던 어린아이를 아는가?” 신하들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죽은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람됨이 착했는가? 나빴던가?” “신 등이 항상 그를 보았는데, 선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재계와 공경과 정성스런 믿음으로 제 몸을 지켰으며, 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제 만약 그 아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보면 알아보겠느냐?”

“비록 오래되었으나, 신 등은 본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은 어린아이의 옷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말했다.

“이것이 그것인가?” “그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죽어서 왕자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존귀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전생에 재계를 행한 까닭입니다.”

신하들이 다함께 말했다. “우리들은 다행하게도 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가없이 여기시어 제자가 되게 하소서.”

도인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큰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받고 몰으셔야 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이 목숨이 다하기까지 한 번이라도 법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도인이 말했다. “나의 스승임의 명호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공중을 날 수 있고 정수리에는 광명이 있으며, 몸을 분산시켜 만 가지로 변화하고, 홀로 삼계(三界)를 거닐어서 짝할 이가 없으며, 문도들은 깨끗하여 모두가 사문이고, 그 가르치신 바에 의해 지도되고 해탈되어 허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도인에게 물었다. “부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6천 여러쪽에 계십니다.”

도인이 날아서 사위국에 도착해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가겠다.”

그러하여 부처님과 비구들은 부연국에 와서 거룩한 신력을 보였다. 왕과 신하들은 꽃과 향을 가지고 성을 나가 부처님을 맞았으며, 부처님의 거룩하고 신령함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머리 조아려 예배했다. 왕은 마음을 다해 공양을 베풀고 손수 나르며 씻을 물을 올렸다. 축원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웃으시니 입에서 오색의 광명이 나오자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허망하게 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마하문불 때에, 왕은 큰 장자 집안의 아들이어서 그 아버지가 3존께 공양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하여 향을 전하게 했다. 그때 어느 한 시자를 마음속으로 가버려 여겼기에 그 향을 주지 않았었다. 죄와 복은 향응이라 잠시 동안 부림의 과보를 받았으나 법 받들기를 그만두지 않았기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만약 내가 도를 얻으면 이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고 했었다.”

이 본말을 말씀하시자, 뜻이 이해되어 이내 수다원이 되었으며,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5계를 받고 10선을 행했다. (조달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삽화 · 강병호

“이제 만일 아이의 몸을 보게 되면 알아보겠느냐?”

신하들이 한참 만에 대답했다.

“신 등은 어슴푸레해서 갑자기 보면 분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만났던 도인이 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도인에게 말했다.

“머리를 팔러 했으나 걸인도 가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 본말을 보이려 하는데, 다행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자 도인은 이내 신하들을 위하여 말했다.

“왕은 본시 선왕 때에 일산을 붙잡았던 어린아이입니다. 언제나 선왕을 따르면서 재계하고 바른 법을 받들어 행하였으며 깨끗하게 뜻을 수호하여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3



## 반달은 원영이가 먹고 남은 달

손자도 스승

손자 원영이의 전화를 받았다. 어린 애기 때부터 무수한 법문을 토해내던 외손자 원영이를 나는 스승님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원영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문을 했다. 세 살 무렵, 가족이 서울 선유도에 나들이를 갔을 때였다. 하늘을 바라보니 반달이 떠 있었다. 나는 그 달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기에 반달일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때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반달은 원영이가 달의 반을 먹어버려서 반달만 남은거야.”

나는 너무 놀랐다. “달을 먹었다고?” 하며 되물었더니 그 세 살짜리 애기가 별책 일어서면서 말했다.

“달을 먹었더니 이렇게 커졌지요.”

나는 이 놀라운 말에 또다시 물었다. “달이 무슨 맛이었는데?”

그러자 원영이가 대답했다. “달은 달 맛이지”

그날은 세 살짜리 애기로부터 한 소식을 듣는 날이었다. 그 후 어느 날 법담사 참배 가는 길 차 속에서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살다가 여러 문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너무나 놀란 나는 또 물었다.

“달은 달맛이지”

어린 손자에게 듣는 법문

“그럼 어디에서 많이 살았나요?” 했더니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살았어요.” 라고 했다. 겨우 4살 애기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늘 감동하고 감탄하며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다섯 살 때 친손자가 태어나는 날, 그날도 큰 딸 근영이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차 지붕이 열려 있어 또래인 사촌 사나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더 뚱뚱 해졌네!” 하고 사나가 말하자 원영이가 답을 했다.

“응 어제 내가 삼켰다가 오늘 토해냈더니 저렇게 큰 달이 되었어.”

어느날, 엄마의 핸드폰으로 큰 나무를 찍어서 내게 전송하면서 한 말씀 덧붙였다.

“할머니도 이 큰 나무처럼 큰마음으로 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법문은 무엇인지요?” 하고 전화로 청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내게 이런 질문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민을 하다가 “사자나 코끼리가 아닐까” 했더니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땅이 제일 힘이 세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기차도 빌딩도 그리고 차들도 들도 산도 모두 다 땅이 이고 있으니까 힘이 제일 세지요” 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이 있었다.

“할머니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개를 없앨 수 없나요?” 하기에 나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손자의 답은 “바람이 씨웅~씨웅~ 불어오면 안개는 바람 따라 날아가고 말 거예요” 했다.

“밥을 많이 먹었나요?” 하고 물어 볼 때면 “나는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퐁을 먹었지요.” 하기에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 “밥을 먹으면 퐁이 되지요” 했다.

무수한 원영이의 이야기들을 나는 큰스님의 귀한 법문이라고 생각했고 ‘손자도 스승’ 이라 생각했다.

학교에 입학하고, 생활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나오는 점점 전화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어느 날 물었다 “왜 요즘엔 법문을 안 해주느냐?” 했더니 “이미 그동안 다 해 줬으니 그걸 잘 생각하면 되지요.” 하는 것이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지금은 학교 숙제도 해야 하고 그럼도 그럭이하고 확실히 가야하니 바빠서 그런 생각에 쫓겨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 나도 일곱 살이 되면 이런 법문 듣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은 그 맑고 깨끗한 영혼에 세상의 악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며 전생의 익힌 습성을 덮어가기 때문이라.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잠재된 지혜만은 언젠가 또 다시 빛으로 나타나라 믿으며 더 큰 스승으로 세상의 어른이 되어 줄 것을 축원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 문헌 보석 같은 화두를 꺼낸 것일까? 원영이가 얘기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하필이면 강원영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천상이나 극락에 가야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믿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오랜만에 듣는 원영이의 말이었다. 어제도 전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먼 옛적의 전생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또 무슨 업연으로 살았을까?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께서 날마다 칠판에 글을 써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과거생의 내 삶이 궁금하면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알 것이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보면 알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말 한마디의 상처가 아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럽혀진 강물이 맑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야지만 맑은 물이 되어 흐르게 될까? 익힌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쉽지 않은 일, 한번 생각하고 말할 기회가 한번 생각하고 행동 해야만 나도 남도 상처와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스승님의 말씀처럼...

부산 연꽃모임회장

## 불교종합쇼핑몰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